

[특별기고] 中企에 희망 심어준 '세일즈 외교'

안승현 기자    입력 : 2016.10.16 17:00 | 수정 : 2016.10.16 17:00



우리 회사는 카페 장비 및 재료 판매, 사후관리(AS), 원두 로스팅, 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젊은 창업기업이다. 특히 주변 상권 및 매장 환경에 맞는 메뉴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좋아 해외진출을 추진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카페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때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자력으로 해외수출 길을 열어가자는 것은 작은 회사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막상 바이어를 만난다 해도 언어 및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 차이로 비즈니스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는 의미가 컸다.

지난해부터 대통령 경제사절단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번 라오스 방문 경제사절단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우리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테이블에 도착하자 한국인 통역사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졌다. 젊은 창업 기업인인 나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라오스에서 어떤 회사가 한국의 작은 회사를 알고 또 서로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KOTRA 측에서 우리 회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회사와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지 상담 계획까지 상세히 잡아준 덕분에 불편함이 없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 회사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했다.

이에 힘을 얻어서인지 무려 8개 회사와 상담을 했으며, 커피 생두의 직수입 개척 및 장비 수출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중 한 회사는 장비와 기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다른 라오스 현지 회사와 20만달러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한국 전통 디저트 카페를 올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2.3호점도 열 계획이다. 이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상담회 다음 날에는 '라오스 진출 20개 기업 경제인대표 오찬'에 초대됐다. 국내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서 뵈게 되니 그만큼 감동이 컸다. 경제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대통령의 말들로 가슴이 뭉클했다. 오찬을 마치고 라오스 대통령궁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를 수없이 외친 것 같다. 해외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정부의 외교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기업들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로서는 해외에 진출하는 날개를 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희 (주)로스팅 컴퍼니 로움 대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